

# “어렵지만 지방선거 최선 다할 것”

### 민평당 조배숙 대표, 취임 3개월 맞아

“현역의원 호남 집중 의미있는 성과 거둬야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구도 만들 것”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3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3개월을 맞아 7일 “정당의 존재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평화당은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3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창당하느라고 엄청 바쁘게 달려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떠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아무래도 저희당 현역 의원들이 호남에 집중돼 있으니까 호남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높지만 다음은 평화당이다. 호남에서 강력한 경쟁구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호남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당을 지지해도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성과가 별로 없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있어서 인사, 경제 문제 등에 있어 정부여당이 호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가 됐

다”며 “이것은 결국 경쟁의 힘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경쟁 구도를 확실히 만들어 호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은 것을 믿고 공천을 오만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평화

당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당은 반사이익을 기대해서 안 된다고 본다. 본연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인물로 승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돌볼 수 있는 공약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 문제가 실업문제도 있지만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주거복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주 내로 평화당의 10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전북의 경우 후보가 정해져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다. 지역별로 선거 활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며 “전북은 오는 13일 전주 전북대 실내체육관에서 전진대회

### 인재영입 어려움 털어놓기도 정의당과 선거연대 가능성에 “이야기 나눈 것은 없어”

를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신생정당으로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조 대표는 수도권과 강원, 영남 등 지역에서의 평화당 후보들에 관한 질문에 “영입이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 솔직히 어렵지만 저희들은 지금도 계속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 좋은 후보들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동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의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한국당 김성태 폭행, 조직적 정치 테러?

### 경찰 “배후 흔적 없어”

####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폭행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로는 폭행범과 관련한 특정 세력이나 배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폭행범 김모(31)씨가 작심하고 취재진 앞에 나서 본인의 단독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는가 하면 경찰의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역시 의심될 만한 인물과 접촉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조

조직 연계 세력의 유무, 기획된 범행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김경수는 무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을 외쳤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테러의 목표로 삼았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일탈행동이 아니라 특정 단체와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폭행 후 병원으로 옮겨졌던 김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장에 복귀한 상태다. 주변의 경호는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이날까지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김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뉴시스

##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

### 민주당 “24일 동시 처리” vs 한국당 “先특검, 後추경” 입장차만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답판 회동’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을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先) 특검, 후(後) 추경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방송법 개정, 추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24일 추경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당 등이 24일 동시 처리는 절대 안 된다. 내일 특검을 처리하고 추경을 따로 논의해 처리하자고 해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의 책임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돌리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8일 이후 합의가 안 되면 국회 문을 닫겠다고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추경 처리 등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주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 큰 제언인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국회를 파행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회를 파탄내고 그걸 명분 잡아 지방선거에 임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의 자세가 있는지, 합의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회동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저는 계속해서 이점이 있으면 이점이 없는 점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율하거나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원하는 것만 갖겠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방적인 태도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을 수용하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너무 많이 붙인다”며 시기와 특검 임명, 추경에 관한 민주당의 조건을 거론했다.

조건이 없으면 수용 가능하다는 질문에는 “그만하자”며 자리를 피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 수용할 테니까 보따리(조건)를 풀어줬다”며 “당당하고 떳떳한 특검 하나 들어주면서 무슨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냐”고 반문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면서 5월 국회 정상화는 다시 안갯속에서 갇히게 됐다.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 시한을 8일 오후 2시 못 바꿨지만 시한 전에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날 지는 미지수다. /뉴시스

## 노동당 전북도당 등 5개 도내 진보정당 ‘청소년 참정권 즉각 보장하라’

‘선거 연령 기준을 즉각 하향해 6·13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진보정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녹색당·정의당)은 어린이날인 5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찬영 정의당 예비당원모임 부위원장 등 10여명은 “지난 박근혜 퇴진 촛불의 광장에서 청소년들은 동등한 시민으로서 비청소년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고 밝힌 후 “대한민국의 헌법은 참정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단지 나이 때문에 모든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는 공식선거법과 정당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면서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의 차이를 폐지하고 정당법을 개정해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노동당 전북도당 등 전북지역 5개 진보정당은 어린이날인 5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이학수

### 김제시장 후보에 박준배 확정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장 후보에 이학수, 김제시장 후보에 박준배 후보가 각각 확정됐다.

지난 5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2차 경선을 치른 정읍과 김제 시장 후보에 대한 제7차 경선결과를 발표하고 정읍에서 이학수 예비후보가 유진섭, 김석철 예비후보를 이겼다고 밝혔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ARS 함께 40.07%를 얻었으며, 유진섭(30.67%), 김석철(30.37%) 예비후보를 10% 가량 앞섰다.

또 김제에서는 박준배 예비후보가 51.93%를 획득, 48.17%를 얻은 정호영 예비후보를 앞서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창원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기업)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식보급 5,733,677,999
...	...
66	참여해주시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99

홍보대사 류수영